

수능·전면등교 대비... 고3·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 스타트

고3 46만명, 교직원 19만명 대상
화이자 접종, 개학 전까지 마무리
대학 입학사정관도 우선 접종
을 수능시험엔 '집단면역' 기대



지난해 12월3일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에서 감독관이 수능 문제지를 배부하고 있다. /뉴스사

지난해 백신 접종이 없어 '마스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데 반해, 올해는 대부분 수험생과 관련 종사자들이 백신을 접종한 '집단면역' 상태에서 입시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이 19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데 이어 대학 입학사정관과 각 시·도교육청 등 입시업무 담당자들도 9월 전까지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고3 백신 맞고 '집단면역' 속 수능 계획**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19일부터 30일까지 약 10일 동안 전국 고3 재학생 46만여명과 고교 교직원 19만여 명 등 약 65만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이뤄진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 3주 뒤인 내달 9일~20일 진행된다.

앞서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해 오는 11월18일 예정된 수능을 위해 수험생과 교직원 대상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접종 날짜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다. 학교 단위로 정해지는 지정 날짜에 단체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사와 개별 협상을 확보한 백신 물량이다.

재수생 등 고3제외 수험생도 사전 예약을 거쳐 내달 중 화이자 백신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된다. 대상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 지원자로, 10만9192명이다. 다만 이 중에는 대학입시와 거리가 먼 30~40대 허수지원자도 포함돼 있다.

대학입시와 안정적인 수능 운영을 위해 대학 입학사정관과 교육청 및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학업무 담당자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9월1일 2022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으며, 수능 시험은 11월18일 치러진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며, 수능 앞두고 각 대학별 논술, 면접, 실기 등 고사가 치러진다.

◆**전체 교직원 백신 접종도 속도...2학기 '전면 등교 대비'**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교직원

대상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초등학교3학년~6학년 교직원과 중학교 교직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게 된다.

우선 접종 대상자였지만 미예약·예약 취소 등으로 누락된 교직원도 오는 2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앞서 가장 먼저 30세 이상 보건교사·특수교육 종사자가 지난 4월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30세 미만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종사자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전예약을 거쳐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1~2학년 교직원과 돌봄인력도 이미 1차 접종을 마쳤다. 지난 8일~10일 사전예약을 거쳐 지난 13일~17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본격 입시철 앞두고 학원전파도 차단**
학교 밖 주요 감염사례로 꼽히는 학원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 대책도 마련됐다. 전국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됐다.

강원·광주·경북·대구·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등 14개 시·도에서 오는 26일부터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경남은 오는 8월2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어 전국 다른 15개 시·도에서도 학원종사자를 지자체 자율 접종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개학 전인 8월까지 모든 교직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교직원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삼육대, 제주 일출랜드와 산학협력 '맞손'



김일목 삼육대 총장(오른쪽)과 강재업 삼영관광 일출랜드 회장이 양 기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원예학과 실습활동 협력하고
상호발전 위한 인프라 등 공유

삼육대학교는 삼영관광 일출랜드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13일 제주 서귀포시 일출랜드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위치한 일출랜드는 제주 동부권의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 학술적·관광적·문화적 가치가 큰 천연 용암동굴인 미천굴을 중심으로

민속촌, 아열대 정원, 제주 야생화·현무암 분재 정원, 제주 조각의 거리, 아트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 및 산학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삼육대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학생들의 실습활동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 교환 및 인프라 공유,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14일 오전 산학협력관에서 진행한 '2021년 대학원생 논문기반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프로그램 공모'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대

국민대, 대학원생 연구성과 지재권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공모 시상식
'차선 변경 알고리즘 개발' 대상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14일 오전 산학협력관에서 '2021년 대학원생 논문기반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프로그램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BK21(4단계)사업단·LINC+사업단·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특성화대학원, ERC사업단에서 후원한 이번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프로그램 공모는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 분야에서 대학원생들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지식재산권화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눈길을 끈 논문은 대상을 차지한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오태영(지도교수 박기흥) 학생의 '주변 차량의 안전을 고려한 자동 차선변경 알고리즘 개발'이었다.

오태영 학생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자의 지시 또는 자율주행 로직의 판단에 따라 차선변경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차차량과 주변차량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기술성, 권리성 및 사업성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총장 명의의 상장 및 상금(200만원)과 더불어 해외 특허 출원비용 전액을 지원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오기성·김희중(지도교수 임세준) 학생의 '딥러닝 기반 차량 경로 예측 모델의 전파과정 간소화를 통한 트레이드오프 성능 검증 연구'와 우수상을 수상한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김무성(지도교수 김남규)·바이오발효융합학과 조영은(지도교수 박용철)·전자공학과 이용우(지도교수 최성진) 학생 등의 연구도 기술의 완성도와 권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수상자 전원은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상장 및 상금과 더불어 국내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지원사업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과 연계해 특허실제 지원과 기술마케팅을 후속 지원받게 된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드론산업 전문인력 과정' 운영

미취업자·졸업예정자 대상

세종대학교는 내달 미취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드론 산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1년 8월 2일부터 25일까지 총 120시간 과정으로 이론교육

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실습 교육은 세종대에서 열린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의 집약체인 드론을 통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 수요에 비해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비는 국비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 및 드론 3종 국가자격 비행경력증명서 발급과 드론과 관련된 무료 온라인 교육 수강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교육 과정의 신청은 오는 7월 23일까지로 4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10·28 건대항쟁 학술적 조명' 발표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1986년 건국대에서 벌어진 '10·28 건대사건'의 전개와 의미를 역사학과 정치학적 관점에서 서술한 의미 있는 연구가 발표됐다.

18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연구는 시

민정치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시민정치연구' 제2호에 출판된 논문으로 건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한 신복룡 전 교수에 의해 저술됐다.

10·28 건대항쟁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6개 대학 학생 2000여 명이 모여 건국대에서 전개한 학생 민주화 운동으로, 단일사건으로는 유례없는 구속자수 1288명을 기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 목격자이기도 한 신복룡 전 교수가 학술지에 특별기고한 이 글은 건대항쟁 당시 현장 유인물과 자료는 물론, 후에 나온 여러 평가서를 참조해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현진 기자